

작가노트

올해는 제가 불화업과 인연한지 45년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무서운 집념과 실천력,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지녔으며, 출가인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수많은 단청그리기에 몰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보통 단청(丹靑)이라 하면 사찰이나 관아 건축물에 만다라 문양을 넣고 채색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이 단청에는 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포함된다. 그것이 그림으로 전각 안에서 불전을 장엄하는 것이 되면 불화(佛畵)라 하고, 그 안에는 부처님을 그린 탕화(幀畵)와 역대 조사나 선인들의 영정이 포함되며, 건물에 채색하면 단청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니 불화는 다른 그림과 달라서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불화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선함만을 추구하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이자 종교인 불교적인 이념에 입각해 주제를 그리는 성스러운 예술입니다. 그렇다고 불화를 꼭 종교적 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으며,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마음으로 불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화 관련 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화 보유자로서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기원합니다.



박 정 자

PARK JEONG JA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지정

선정관음(禪定觀音)



- 주요 수상 및 경력**
 1971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인 만봉 이지호 스님 문하에 입문
 1983년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상전 입상
 1984년 제 9회 전승공예대상전 장려상 입상
 1984년 대한민국 불교 미술대상전 동상입상
 1985년 제10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수상
 1986년 제11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금니부모은중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신중탱화, 구룡도, 사천왕 병풍)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지정
 1988년 한국전통미술회 부이사, 천공회(天工會)회장 역임
 1991년 제 1회 개인전(경북공 전통공예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작품
 백수백복,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가사탱화, 신중탱화, 사천왕 탕화, 상단탱화, 용봉가리개

역대 대통령 및 기타 소장 작품
 전두환 전임 대통령 "부모 은중경"
 노태우 전임 대통령 "백수백복"
 김영삼 전임 대통령 "백수백복"
 김대중 전임 대통령 "백수백복"
 노무현 전임 대통령 "금박 백수백복"
 고건 전임 국무총리 "백수백복"
 육군본부 "백수백복"

인사말씀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전남도민과 여성문화를 공유하고자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여성작가 기획전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회 기획전시 주제는 「南道가 품은 오방색」으로, 전남의 자연친화적인 자연과 문화를 단청의 오방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전통문화유산 보유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 장인과 김미경 서각작가의 콜라보레이션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 장인은 여성금기의 두려운 불가 전통 벽을 허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불화가로 40여년이 넘는 세월을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미경 서각작가는 그동안 남성의 전용물로만 인식되었던 서각공예를 여성의 감성과 섬세함으로 서각예술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성작가가 우리나라 전통 미의 절정이자 채색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단청을 각각 다른 재료인 삼베와 은행나무에 오방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방금 채색한 듯 호화롭고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오방색의 어울림에서 각 계층간 화합의 의미와 훌륭한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두 여성작가의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대를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도민과 여성예술인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손 문 금



전남여성플라자는 도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성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
 여성문화사 학습, 전남여성의 문화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여성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전남여성플라자
 Jeonnam Women's Plaza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061) 260-7300 Fax. (061) 260-7319
 www.jwomen.or.kr



ZigZag
 지그재그展

전시기간 : 2016. 8. 2.(화) - 9. 30. (금)
 오픈행사 : 2016. 8. 2.(화) 오후 4:00
 전시장소 : 전남여성플라자 2F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주최·주관 :



김 미 경

KIM MI KYUNG

특히, 서각 부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서각 인구의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작가는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창작성을 높이고 그 작품 세계에서 여성작가로서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이해와 융합을 통해 화합을 이루어가자는 'ZigZag(지그재그)' 의 의미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부디 이 전시를 통해서 서각이란 부분이 남성의 전용물이 아닌 예술세계의 한 부분이어서 우리 여성 작가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하는 바램이다.

경력 및 수상내역

- 미다운 아트 대표
- 사)백산전통서각협회 홍보이사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서각과정 보조강사
- 사)백산전통서각협회 강사
- 한국문화예술협회 예술대제전 대상
-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동상
- 한국문화예술협회 초대작가

작가노트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예술 작가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본 작가는 상상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면서 거듭나고 싶다.

서각 작가는 서각장이로서 전문성을 갖고 글과 그림 등을 나무 위에 새김으로써 단순히 베낀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종이 위에서의 작품을 나무에 옮겨 창작하여서 원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알고 싶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각자 본인의 것이 최고라고 다른 예술품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돋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면서 왜 서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연, 지연 혹은 남녀의 차이점이라는 것들 때문에 막히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한다 한다.

선정관음(禪定觀音) 75cm×88cm_은행나무





백수백복(百壽百福)



지장보살(地藏菩薩) _ 490cm×835cm_은행나무



연화도_은행나무



백수백복(百壽百福)



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